

[고3] 15분 모의고사 Final 5회

이름 :	풀이시간:	분	점수:	/ 총 100점 (각 10점)
------	-------	---	-----	------------------

1. <보기>는 ‘여달이문을 여는 방향’에 관하여 설명하는 발표문의 초안이다. 고쳐쓰기의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왜 어떤 문은 안으로만, 어떤 문은 밖으로만, 또 어떤 문은 안팎으로 다 열릴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저는,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여달이문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달이문에는 안으로만 열리는 안여달이문, 밖으로만 열리는 밖여달이문, 안팎으로 모두 열리는 양여달이문이 있습니다. 이런 여달이문을 여는 방향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복도를 따라 늘어선 사무실들의 문은 보통 안여달이문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사무실 문을 밖으로 열게 된다면, 열린 문 때문에 좁아진 복도가 답답하게 ㉡ 느껴지겠지요? 또, 복도를 지나는 사람이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극장문은 보통 ㉢ 이문인데, 이는 비상시에 많은 사람들이 긴급 대피를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여달이문은 공간의 구조나 그 공간에서의 행동 원리에 따라 여는 방향이 결정됩니다. ㉤ 여달이문은 미달이문에 비해서 문을 여닫기 위한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문 여는 방향 하나에도 그 나름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 흥미롭지 않습니까?

- ① ㉠에 제시한 내용을 둘째 문단에서 모두 언급하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 ② ㉡은 ‘사람들이’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느껴지지요’로 고친다.
- ③ 문장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에 ‘문에’를 보충한다.
- ④ 문단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을 ‘이렇게’로 바꾼다.
- ⑤ ㉤은 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2. <보기>의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은 종결 어미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종결 어미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 얘기를 들습니까? / 얘기를 들소?
- 의자에 앉아라. / 빨리 밥을 먹어라.
- 날씨가 덥다. / 날씨가 덥지. / 날씨가 덥네.
- 비가 그치겠다. / 비가 그치겠니? / 비가 그치겠구나!
- 철수가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 누가 가느냐가 문제다.

- ① 문장의 시제를 표시하는군.
- ② 뒤에 조사가 연결될 수도 있군.
- ③ 진술, 의문, 감탄 따위를 나타내는군.
- ④ 듣는 이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군.
- ⑤ 음운 환경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는군.

3. <보기>를 참고하여 사전에서 동사에 대해 기술할 때,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동사의 뜻풀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 기>

- 동사의 뜻은 그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사전에서는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동사의 뜻을 함께 기술한다. 예를 들어 아래 예문에서 동사 ‘치르다’는 ‘...이 ...에게 ...을 치르다’와 같은 구조로 사용되는데, 사전에서는 아래와 같이 동사가 쓰이는 구조를 동사의 뜻풀이 앞에 제시한다.

(예문) 손님이 주인에게 밥값을 치렀다.
→ **치르다** ㉠ (...이 ...에게 ...을) 주어야 할 돈을 내주다.

- ① (예문) 주인이 이불을 마루에 깔았다.
→ **깔다** ㉡ (...이 ...을 ...에) 찢어서 벌리다.
- ② (예문)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스쳤다.
→ **스치다** ㉢ (...이 ...에) 세게 달거나 마주치다.
- ③ (예문) 동생이 친구에게 가방을 맡겼다.
→ **맡기다** ㉣ (...이 ...을) 주어서 보관하게 하다.
- ④ (예문) 형이 밥솥에서 밥을 폈다.
→ **푸다** ㉤ (...이 ...에서) 어떤 것의 속에서 꺼내다.
- ⑤ (예문) 그 사람만이 자기 직업을 천직으로 여겼다.
→ **여기다** ㉥ (...이 ...을 ...으로)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 떨기 흰 장미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하자. 하나의 동일한 대상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것은 이윤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보일 수도 있고, 식물학적 연구 대상으로 보일 수도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나치에 항거하다 죽어 간, 저항 조직 ‘백장미’의 젊은이들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과 달리 우리는 종종 그저 그 꽃잎의 모양과 순백의 색깔이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만족을 느끼기도 한다.

가끔씩 우리는 이렇게 평소와는 매우 다른 특별한 순간들을 맞는다. 평소에 중요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이때에는 철저히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오직 대상의 내재적인 미적 형식만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마음의 작동 방식을 가리키는 개념어가 ‘미적 무관심성’이다. 칸트가 이 개념의 대표적인 대변자인데, 그에 따르면 미적 무관심성이란 대상의 아름다움을 관정할 때 요구되는 순수하게 심미적인 심리 상태를 뜻한다. 즉 ‘X는 아름답다.’라고 판단할 때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X의 형식적 측면이 우리의 감수성에 쾌·불쾌를 주는지를 가리는 데 있으므로 ‘무관심적 관심’이다. 그리고 무언가를 실질적으로 얻거나 알고자 하는 모든 관심으로부터 자유로운 X의 존재 가치는 ‘목적 없는 합목적성’에 있다.

㉠ 대상의 개념이나 용도 및 현존으로부터의 완전한 거리 두기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순수 미적인 차원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 정당화는, 쇼펜하우어에 이르러서는 예술미의 관조를 ㉡ 인간의 영적 구원의 한 가능성으로 평가하는 사상으로서 발전하였다. 불교에 심취한 그는 칸트의 ‘미적 무관심성’ 개념에서 더 나아가 ‘미적 무욕성’을 주창했다. 그에 따르면 이 세계는 ‘맹목적 의지’가 지배하는 곳으로, 거기에 사는 우리는 ㉢ 욕구와 결핍의 부단한 교차 속에서 고통받지만, 예술미에 도취하는 그 순간만큼은 해방을 맞는다. 즉 ‘의지의 폭정’에서 벗어나 ㉣ 잠정적인 열반에 도달한다.

미적 무관심성은 예술의 고유한 가치를 옹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극단적으로 추구될 경우에 가해질 수 있는 비판을 또한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독립 선언이 곧 ㉤ 고립 선언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술의 고유한 가치는 진리나 선과 같은 가치 영역들과 유기적인 조화를 이룰 때 더욱 고양된다. 요컨대 예술은 다른 목적에 종속되는 한갓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것의 지적·실천적 역할이 완전히 도외시되어서도 안 된다.

4. ㉠~㉤의 의미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대상의 유용성, 실재 여부 등에 대한 관심을 철저히 도외시키는 심리적 태도
- ② ㉡ : 개별적 취향의 만족에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인간 정신의 구원으로까지 고양되는 경지

- ③ ㉢ : 끊임없이 무엇을 얻고자 하나, 완전한 만족 대신에 부족함만이 지배하는 상태의 지속
- ④ ㉣ : 예술미에 침잠하여 잠시나마 모든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기쁨의 상태
- ⑤ ㉤ : 예술가들이 작품 창조를 위해 세속으로부터 고립된 별도의 작업 공간을 요구하는 선언

5. 영화에 대한 감상 중, 위 글의 칸트의 입장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이 영화는 그 시대의 모순 고발과 전망 제시라는 두 가지 속제를 훌륭히 해내고 있는 우수작이야.
- ② 영화에 세상일을 개입시키려는 태도는 잘못이야. 영화는 보고 즐기는 생활의 활력소 역할을 하면 되지 않겠니?
- ③ 이 영화의 색채 묘사나 카메라의 시점 처리 같은 대담한 형식 실험은 상식을 뛰어넘은 독특한 심미적 가능성을 열어 줬.
- ④ 이 영화의 흥행 가능성에 대해 난 매우 부정적이야. 주인공만 해도 어른들이나 좋아할 스타일이지, 우리가 보기엔 좀 어색하지 않니?
- ⑤ 영화가 의미를 가지려면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미 소설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영화로 만드는 것은 낭비야.

6. 위 글의 주요 개념을 사용하여 <보기>의 ‘شن베르크의 음악’을 평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شن베르크의 음악은 음의 높낮이와 리듬만으로 구성된 작은 단위들의 변형과 발전을 통해 구현되지만, 주음 - 부음 관계를 파괴하는 불협화음 전략에는 억압적 사회 구조로 인한 고통, 이에 대한 폭로와 저항 등이 오묘하게 함축되어 있다.

- ① ‘미적 무관심성’에서 ‘미적 무욕성’으로 이행하는 음악의 발전 과정을 잘 보여 준다.
- ② ‘미적 무관심성’과 ‘미적 무욕성’이라는 조화되기 힘든 두 이념을 조화롭게 구현한다.
- ③ ‘미적 무관심성’과 예술의 ‘지적·실천적 역할’이라는 두 측면 모두에서 예술의 가치를 잘 드러낸다.
- ④ ‘미적 무관심성’에서 탈피하여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을 추구함으로써 음악의 ‘지적·실천적 역할’을 수행한다.
- ⑤ ‘미적 무관심성’을 극한까지 밀고 간 작품으로, ‘지적·실천적 역할’ 같은 음악 외적 요소의 개입을 절대적으로 거부한다.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내는 너 밤새워 가면서 도적질하러 다니느냐, 계집질하러 다니느냐고 발악이다. 이것은 참 너무 억울하다. 나는 어안이 병병하여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야말로 나를 살해하려던 것이 아니냐고 소리를 한번 꺾 질러 보고도 싶었으나 그런 긴가민가한 소리를 선불리 입 밖에 내었다가는 무슨 화를 볼는지 알 수 있다. 차라리 억울하지만 잠자코 있는 것이 우선 상책인 듯싶어 생각이 들길래 나는 이것은 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내 바지 포켓 속에 남은 돈 몇 원 몇 십전을 가만히 꺼내서는 몰래 미닫이를 열고 살며시 문지방 밑에다 놓고 나서는 그냥 졸달음박질을 쳐서 나와 버렸다.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 나는 그래도 경성역을 찾아갔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좋다. 그러나 경성역 출에 한 걸음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그것을 깜빡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또 아득하였다.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머뭇하면서 어쩔 줄을 모를 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A] <나는 어디로 어디로 들입다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쓰꼬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 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 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여 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그러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또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오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흥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효를 헤어 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뜻하다.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똑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의 정량을 나에게 먹여 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면서 도적질을, 계집질을 하였나? 정말이지 아니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나나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① 이때 두-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 이상, 「날개」 -

- * 미쓰꼬시 : 일제 강점기에 서울에 있었던 백화점 이름.
- * 회탁의 : 회색의 탁한.
- * 아달린 : 수면제의 일종.

7. 위 글의 서술적 특징과 효과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독백적인 어조로 현실과 단절된 의식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ㄴ. 단정적이고 객관적인 진술로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ㄷ. 회상의 기법을 사용하여 현재와 과거의 화해를 지향하고 있다.

ㄹ. 비유적 표현으로 인물의 생각과 인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8. 일제 강점기에 미쓰꼬시 백화점은 서울에서 매우 높은 건물이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A]에서 ‘미쓰꼬시 옥상’이 가지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로 하여금 내면적 성찰을 시도하게 한다.
- ② ‘나’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한다.
- ③ ‘회탁의 거리’를 압축적으로 조감할 수 있게 한다.
- ④ ‘나’와 ‘회탁의 거리’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 준다.
- ⑤ ‘회탁의 거리’를 부자유와 체념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9. ㉠에 관한 설명의 일부인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철학과 문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시간을 가리키는 말에 함축적인 의미를 부여해 왔다. 특히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정오’를 각성과 재생의 시간으로 간주했다. ‘정오’는 인식의 태양이 가장 높이 솟아오른 때라는 것이다.

- ① ‘나’의 의식 상태는 ㉠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겠군.
- ② ‘정오’의 사이렌 소리가 ‘나’의 생명력을 일깨운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정오’의 함축적 의미 때문에 ㉠을 경계로 어조와 분위기가 바뀔 것이겠군.
- ④ ‘나’는 ‘정오’가 되면서 자아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로 시선을 전환하게 되는군.
- ⑤ 이 작품은 시간의 물리적인 의미보다 심리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고 읽어야겠군.

10.<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날개」는 현대 문명과 불화를 겪고 있는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아내’와 ‘나’의 부조리한 관계에 빗대어 표현한 작품이다. 여기서 ‘아내’는 현대 문명을, ‘나’는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상징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 소설에 나타나는 사물들과 사건들 또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 ① 도적질하거나 계집질한다고 ‘아내’가 ‘나’를 의심하면서 따지는 것은 지식인의 내면세계에 대한 현대 문명의 위협적인 힘을 의미한다.
- ② ‘나’가 아내 몰래 집에서 나온 것은 현대 문명의 구속을 맞서고자 하는 지식인의 적극적인 대결 의지를 의미한다.
- ③ ‘나’가 ‘아내’에게서 완전히 떠나겠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현대 문명과 결별하기 어려운 지식인의 의식 상태를 의미한다.
- ④ 자신도 모르게 아달린을 먹어 왔는지도 모른다는 ‘나’의 의구심은 자기의 이성이 자신도 모르게 현대 문명에 길들여져 가는 데 대한 지식인의 두려움을 의미한다.
- ⑤ ‘나’의 머릿속에서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번뜩인다고 한 것은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지식인의 소망을 의미한다.

<수고하셨습니다.☺>